

## 김승현 미국변호사, 심당학술상 수상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 발간

**법** 무법인 태평양의 김승현 외국변호사가 3월 9일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국제거래법 전공) 논문을 보완, 발전시켜 발간한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FIDIC 계약조건을 중심으로》로 제9회 심당국제거래학술상을 수상했다.

심당국제거래학술상은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의 업적을 기리고 국제거래법과 국제경제법 분야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2007년부터 제정, 운영하고 있는 상으로, 심당은 송상현 선생의 호다.

김승현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워싱턴대 로스쿨(LLM)을 나와 뉴욕주 변호사가 되었으며, 태평양 국제중재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



## 박영기 변호사, ‘납세자의 날’ 국무총리 표창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

**법** 무법인 광장의 박영기 변호사가 3월 3일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박 변호사는 관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할당조정관세제도, 휴대품 면세기준 제도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제안하고 관세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참여 등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 관세청서 근무

박 변호사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관세청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2009년 광장에 합류해 자유무역협정(FTA),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기타 무역관련 사건에서 활약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2013년엔 조세의 날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

## 박상철 변호사

## 우수논문상 수상

**박** 상철(사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2월 26일 한국유통법학회가 선정하는 제1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수상 논문은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의 법적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소위 해외직구와 역직구를 중심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박 변호사는 방송·



통신, 인터넷 산업 분야에서 10여년간 전문성을 축적한 미디어 및 정보통신(TMT) 분야의 전문 변호사 중 한 명이다.

### ‘해외직구와 역직구’ 쟁점 분석

이날 한국외대 법학관에서 열린 한국유통법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에서 최영홍 교수가 ‘대리점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문상일 교수가 ‘온라인 불법피라미드 관련 법제 개선방안’을, 김진우 교수가 ‘소비자계약에서의 철회 효과에 관한 입법론’을, 김인현 교수가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의 화물상환증의 효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